

광주 서구 풍암동 자율방범대 발대식



광주 서구 풍암동 자율방범대(대장 김인성)는 지난 26일 풍암동 호수공원 앞에서 회원 25명과 함께 발대식을 열고, 호수공원 및 마트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아동센터 노후시설 수리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는 최근 광주 용두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시설을 수리해주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를 펼쳤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MBC-중국 후난대 교류 협약



최근 중국 호남성 장사시 후난대학(湖南大)에서 광주MBC(사장 최영준·왼쪽)와 중국 후난대학 신문방송영상미디어대학(학장 평주빈)이 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호남대 제공>

전남과학대, 빛고을 가족모델 한복 패션쇼



전남과학대학교(총장 조성수) 공연예술모델과와 빛고을 가족사랑모델 시범단은 최근 광주 콘텐츠산업지원센터 공개홀에서 빛고을 가족모델 한복 패션쇼 '위기 때마다 희망으로'를 개최했다. <전남과학대 제공>

‘문체부장관상’ 최지우양

제59회 호남예술제 수상자 인터뷰

‘국회의장상’ 홍수빈양

“음악으로 위안 주는 연주자 될 것”

“사실, 이번 경연 때 연주가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아 속상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더 기뻐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음악으로 위로하는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59회 호남예술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최지우(17·서진여고 1년) 양은 비올라를 연주할 때,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최양은 초등학교 때 이미 최고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재원이다. 이번 경연에서는 배리의 ‘비올라 소나타’ 1악장을 연주했다.

“바이올린 소리도 좋지만 제가 목격한 저음을 좋아해서 비올라의 음색에 빠졌어요. 첼로의 낮은 음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악기가 커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비올라는 어디든지 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취미로 바이올린을 시작한 지우 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비올라로 악기를 바꿨다.

“선생님께서 감정 표현하는 게 장점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성격이 느릿느릿한 편이라 무언가를 빨리 흡수하고 테크닉이 금방 금방 느는 편은 아니에요.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차분한 성격의 지우양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바흐다. 존경하는 비올리스트 유리 바슈메트(러시아)처럼 멋진 비올리스트가 되는 게 그녀의 꿈이다.



비올라 연주할 때 가장 행복
초등생 때 이미 최고상 수상
러시아 유리 바슈메트 존경

“랑랑처럼 멋진 피아니스트 꿈꿔”



중학생 수상 ‘드문 일’
6살 때부터 피아노 시작
하루 4시간씩 연습 매진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59회 호남예술제에서 홍수빈(15·목포 하당중 2년)양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각 분야 최고상 수상자 40여명 가운데 선정하는 국회의장상을 고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 받는 건 드문 일이다.

“호남예술제에서 금상, 은상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드디어 최고상을 받고 거기에 국회의장상까지 받았으니 더 기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6살 때 피아노를 시작한 수빈양은 목포 신홍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지난 호남예술제에서 동상을 수상하면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워왔다.

에선 때 소풍의 에피드 ‘혁명’을, 본선에서 베토벤의 ‘소나타 11번’을 연주한 수빈양은 소풍의 음악을 가장 좋아한다. 특히 소풍의 ‘발라드’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가장 즐겨 연주하는 곡 중 하나다.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는 개성이 넘치는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

“기본에 충실하면서 연습을 꾸준히 해야할 것 같아요. 곡의 분위기를 잘 생각하면서 감성적인 부분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테크닉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죠. 열심히 연습해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하루 4시간 정도 꼬박 꼬박 피아노연습을 한다는 수빈양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군 하사 이명심씨 27년만에 예비군 복귀

1980년대 여군 하사로 복무했던 50대가 전역 27년 만에 다시 여성 예비군으로 활동해 화제다.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명심(여·54)씨는 육군 31보병사단에 지난 27일 하사로 참여했다. 이씨는 여군이 드물던 지난 1983년 12월 군에 입대해 육군본부 작전참모처와 상무대 학교본부에서 복무하다가 1987년 4월 하사로 전역했다.

이씨는 한때 직업군인을 꿈꿨지만 혼자 자영업을 하느라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도우러 고 포기했다. 이제 여성 예비군으로 자원해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된 그녀는 아직도 현역 시절 군번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불려만 준다면 다시 입대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군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 단원으로 활동하며 개인 사업자 폐업시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을 정책으로 제안해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역사마을 보존’ 양림동 포럼 7월 발족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한 자생적인 주민협의체가 오는 7월 말 발족된다.

양림근대역사 문화마을 포럼(이하 양림동 포럼)준비위원회는 지난 26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예비마을에서 예비모임을 갖고 주민들이 이끌어 가는 양림동 포럼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날 예비모임에는 양림동 출신의 화가 한희원, 정장운 전 양림문화사랑회장, 유희광 후원원 원장, 건축가 박홍근, 박형관 남구 문화관광과장, 정성구 도시문화재단 CS 대표, 이승찬 515 갤러리 관

장, 박시훈 교육문화공동체 ‘결’ 대표, 주민 자치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의 참석자들은 양림동이 역사문화마을로 지정됐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과 이벤트 위주의 콘텐츠, 주민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정체돼 있다면서 양림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림동 포럼’은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 의식과 역할을 끌어 올려 양림동이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마을로 자리잡을 수 있는 구상체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고성춘·박공신씨 장남 영진군 안병희·정순이씨 차녀 윤경양=피로연 7월 4일(금) 오후 5시 30분 S타워컨벤션 4층. 7월 13일(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연구공원 1층 본관 웨딩홀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월례회=7월 5일(토)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중친회

▲진주 강씨 광주·전남 통정공 종회=7월 3일(목) 오전 11시 진주 강씨 회관 3층 대회의실 010-2378-0070

향우회

▲재광 보성향우회(회장 장채봉) 정기총회=30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 북구

경일로 페르마 010-4609-2475

알림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로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서비스. 재향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모집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편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광주향교·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본부=우리민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림활동에 관심있는 분 환영. 062-672-7410, 7008.

▲사랑애돌봄사업단 사회전체 이익을 위한 공익형 사업으로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2014년 시민 학생 인문강좌(수신제 가치국평천하)=과목은 논어(論語) 대학(大學),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광주 YMCA 2층 율안(국민 누구나 수강 가능) 010-3625-5433.

▲광주불교교육원 2014년도 불교문화대학=교육대상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

부하고 싶으신 분(1년 과정), 강의 시간은 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월 1회 불교문화 현장학습 실시 062-228-9098.

부음

▲박관주(전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순

천시장) 씨 부인상, 병욱(파미셀(주) 상임고문)·병운(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부총장)·병룡(아시아나항공 차장)·금희·은희 씨 모친상=발인 7월1일(화)오전10시 학동 금호장례식장, 장지=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삼수마을 선영.

▲박찬준씨 별세 광모·민희씨 부친상=발인 1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with details for three families: 101호, 102호, and 201호. Includes names, dates, and locations for the services.